

북한의 러시아 파병 ·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9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31일

발 의 자: 김형재,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69명)

1. 주문

-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북한의 이번 파병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임. 게다가 북 · 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아울러 지난 23일 미국과 나토 역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임.
-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임.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대남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와 같은 도발을 자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음.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 같이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국제연합(UN)

북한의 러시아 파병 ·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3일 미국과 나토 역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다.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대남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와 같은 도발을 자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이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에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 같이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

2024. 10. 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